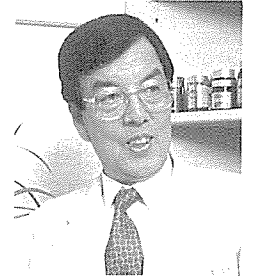


탈모증



국 홍 일
(피부과 전문의)

낙엽지는 가을만 되면 머리칼이 많이 빠져 고민하는 남자들이 늘어난다. 의학적으로 계절과 탈모는 무관하다고 증명됐지만 푸르름을 자랑하던 나뭇잎이 낙엽되어 떨어지는 자연현상이 그 자연 속에 사는 인간에게도 적용되리라는 심리현상으로 머리를 감을 때마다 뭉뚱뚱 빠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물론 갑자기 건조해진 날씨가 피부나 두피(頭皮)의 수분을 빼앗아 피부 신진대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약간은 탈모 현상을 부추기는 현상은 있다. 그렇다고 이 시기에 대머리가 안될 사람인 된다는 것은 아니다.

털이 없다고 해서 생명이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털이 없으므로 해서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많다. 심지어는 여성의 은밀한 부위에 털이 없는 여성은 '채수없는 여자'로 취급되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손바닥, 발바닥을 빼놓고 인간의 온몸은 털로 덮여있다. 그 중 머리칼, 눈썹 등 특정부위의 털은 길고 새까맣지만 다른 곳은 거의 솜털을 벗어나지 못한 잔털이다.

그 중 머리칼은 10만개쯤 되며 성장 → 퇴행 → 휴지기를 거쳐 하루 1백개쯤 밑에서 자라 올라오는 털에 의해 탈락

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머리칼이 병적으로 빠지는 현상이 대머리이며 초기에는 이마에서부터 탈모현상이 나타나 M자형으로 올라가다 머리 꼭대기(頭頂部)에서 빠져내려오는 현상과 합쳐지면 주변머리만 약간 남고 계란형 머리가 된다.

주로 20~30대에서 시작, 그뒤부터 수년동안 계속되며 20대 전부터 시작되는 사람은 지루성피부염과 동반되나 대머리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못한다.

대머리의 원인은 안드로멘이라는 남성호르몬설, 연령의 증가가 원인이 된다고 하나 가장 문제되는 것이 유전이다.

대머리의 아버지, 조부, 삼촌 등 근친에서 대머리가 있으면 반드시 그 아들대는 대머리가 되며 여성은 대머리소인(素因)을 유전자 속에 감추고 있다.

집안에 대머리가 없는데도 탈모가 되는 현상은 원형탈모증이다. 머리 뿐 아니라 눈썹이나 겨드랑이 턱부위의 털이 동전모양으로 빠져 중심부위는 대머리의 그것처럼 대단히 매끈하다. 심하면 주변머리만이라도 남아있는 대머리와는 달리 머리칼이 전부 다 빠지며(Alopecia Totalis) 대머리와 같이 자각증상은 전혀 없다.

이 원형탈모증의 원인은 자가면역질

환, 국소감염 등 여러가지 설(說)이 있으나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으며 한 가지 또는 두가지 이상의 원인이 복합되어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긴장, 초조, 분노 등 강력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원형탈모증은 어떤 경우 전혀 의학적 처치도 없었는데 낫는 수도 있고 완고히 계속될 때는 0.5% 트라이암시놀론이나 프레드니솔론을 국소주사해 주는 방법이 있지만 장기투여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전문의의 예후관찰이 필요하다.

대머리의 치료는 여태까지의 치료법으로는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고 5분만에 콩나물 자라듯 난다는 일부 치료제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으나 이것 또한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중국에서 발명됐다는 생약도 그렇고 이름도 모르는 해조류로 만들었다는 약도 거의 효과가 없이 경제적 손실만 입혔다.

대머리 치료에 최근 확실하다고 증명된 모발이식술이 점차 쉽고 경제성이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활착률 감염증을 유의하고 몹시 비싼 단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7